

최종본(本)

: 마지막 순간 기본으로 돌아가다

2025_생활과 윤리_복습교재

| 이 교재는 복습용입니다.

본교재의 [**Beyond The Sense**]와 [**E-Special**] 부분을 복습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7일차에는 실전 모의고사 검용으로 **작년도 6월, 9월 모의평가**를 실어 놓았으니, 이를 통해 실전 감각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수능완성 실전 모의고사도 좋습니다.)

| Contents

Week 1.

Day 1. 윤리적 접근	4P
Day 2. 죽음관	7P
Day 3. 국가관	9P
Day 4. 정의관	11P
Day 5. 형벌관	13P
Day 6. 시민 불복종	15P
Day 7.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17P

Week 2.

Day 1. 예술관	22P
Day 2. 기술관	23P
Day 3. 직업관	25P
Day 4. 평화관	27P
Day 5. 자연관	29P
Day 6. 해외 원조	31P
Day 7.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P

Day 1. 윤리적 접근

[Review 1. Beyond The Sense]

- 칸트 사상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경향성과 함께 ()와 이성을 지닌다.

↓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을 인식하고 준칙(격률)을 수립할 수 있다.

↓

도덕적 행위의 조건 = ()

언제나 ()적으로 성립해야 함	인격을 ()과 동시에 ()으로 대우해야 함
-------------------	---------------------------

↓

자신의 준칙이 도덕법칙이 되어 ()로서 부과 (But 신은 도덕법칙이 ()가 아님)	()과 도덕은 양립 가능하지만, 도덕은 ()을 위한 수단이 아님
	↓
	행위자의 (), 행위의 ()는 도덕의 기반이 아님 (ex. 동정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 공리주의 사상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인간은 ()과 고통의 () 아래에 있다.

↓

()은 선이고, ()은 악이다.

↓

도덕적 행위의 조건 = ()의 원리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해당사자의 쾌락의 극대화	행위의 ()에 따라 옳고 그름이 결정됨
------------------------------	------------------------

↓

벤담 = 쾌락의 () 측면 강조	쾌락의 ()을 계산해 최대의 쾌락 산출 [많은 쾌락 = 최고선]
밀 = 쾌락의 () 측면 강조	쾌락의 ()을 고려해 최고의 쾌락 산출 [질적으로 높은 () 쾌락 = 최고선]

↓

정책 결정, 입법의 기준 = 사회 구성원의 쾌락 총합

-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논리 구조 -

전제: 행복은 인간의 목적이자 최고선이다.

↓

행복 = () (탁월성)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

영혼의 이성적 부분의 탁월성 ()	영혼의 비이성적 부분의 탁월성 ()
교육을 통해 형성 ex. 철학적 지혜, 실천적 지혜	()의 반복적 실천을 통해 형성
(실천적 지혜 ... 무엇이 ()인지 알려줌)	() = 마땅히 가져야 하는 중간적 선택 (산술적 중간 X)
cf. 매킨타이어: 공동체주의적 덕 윤리 ... 공동체의 구체적, 역사적 맥락 중시, 행위자 중심의 윤리	

- 유교 사상의 논리 구조 -	- 불교 사상의 논리 구조 -	- 도가 사상의 논리 구조 -
전제: 도덕적 이상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전제: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제: 무위의 도를 추구해야 한다.

↓

인인의 덕을 따라야 한다.	변하지 않는 독립적인 존재는 없다. 모든 존재는 상호존재적이다.	자연적 본성으로 돌아가야 한다.
----------------	--	-------------------

↓

수양론	수양론	수양론
- 공자: 효제, 충서 - 맹자: 집의, 구방심	- 삼학(계/정/혜)의 수행 - 자비의 실천	- 노자: 상선약수(겸허, 부쟁) - 장자: 좌망, 심재, 제물의 경지

↓

정치 사상
정명 & 덕치 & 분배의 공정성 (공자) ↓ 왕도정치 & 민본주의 & 향산 보장 (맹자)

↓

정치 사상
소국과민, 무위의 통치 (노자)

[Review 2. E-Special]

칸트	자신의 쾌락을 증가시키지 못하더라도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 X
	의무에 일치하는 행위일지라도 도덕적 행위가 아닐 수 있다.	□ / X
	동정심이나 연민의 감정에서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다.	□ / X
	도덕 법칙은 모든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게 의무로 부과된다.	□ / X
	개인은 자기 자신의 행복 추구라는 동기에 따라 행위 할 수 있다.	□ / X
벤담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X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모두 증가시킨 행위만이 도덕적 행위이다.	□ / X
	행복 증대와 무관한 순수한 희생은 도덕적 가치가 없다.	□ / X
	참된 쾌락은 도덕과 규범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실현된다.	□ / X
아리스토텔레스	모든 행위와 감정에는 중용이 있다.	□ / X
	유덕한 사람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맥락을 배제한 이성의 판단에 따라 행위한다.	□ / X
장자	만물을 차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예(禮)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X
	자연이 인간에게 준 도덕적 본성을 깨달아 순수하게 살아가야 한다.	□ / X
노자	현명함을 숭상하지 않아야 백성들이 다투지 않게 된다.	□ / X
	무위의 덕으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 / X
	작은 국가에서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된다.	□ / X

Day 2. 죽음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플라톤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물질과 ()는 분리되어 있다.
[이원론적 세계관]

↓

죽음 = 영혼이 물질의 한계를 벗어나게 하는 것

↓

물질은 소멸하고, 영혼은 ()함

↓

참된 진리를 인식한 사람은 죽음을 부정하지 않음

- 에피쿠로스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존재는 ()로만 이루어져 있다. [유물론적 세계관]	전제: 인간은 ()과 ()에 의해 인식한다.
---	----------------------------

↓

죽음 = 모든 ()가 흩어지는 것	죽음 = ()의 소멸, ()할 수 없음
---------------------	-------------------------

↓

↓

죽음은 아무것도 아님

↓

현세의 쾌락 중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인식 타파

- 하이데거 죽음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주체적 삶이 참된 ()을 회복할 수 있다.

↓

() =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존재 (= 인간)

↓

죽음 = ()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계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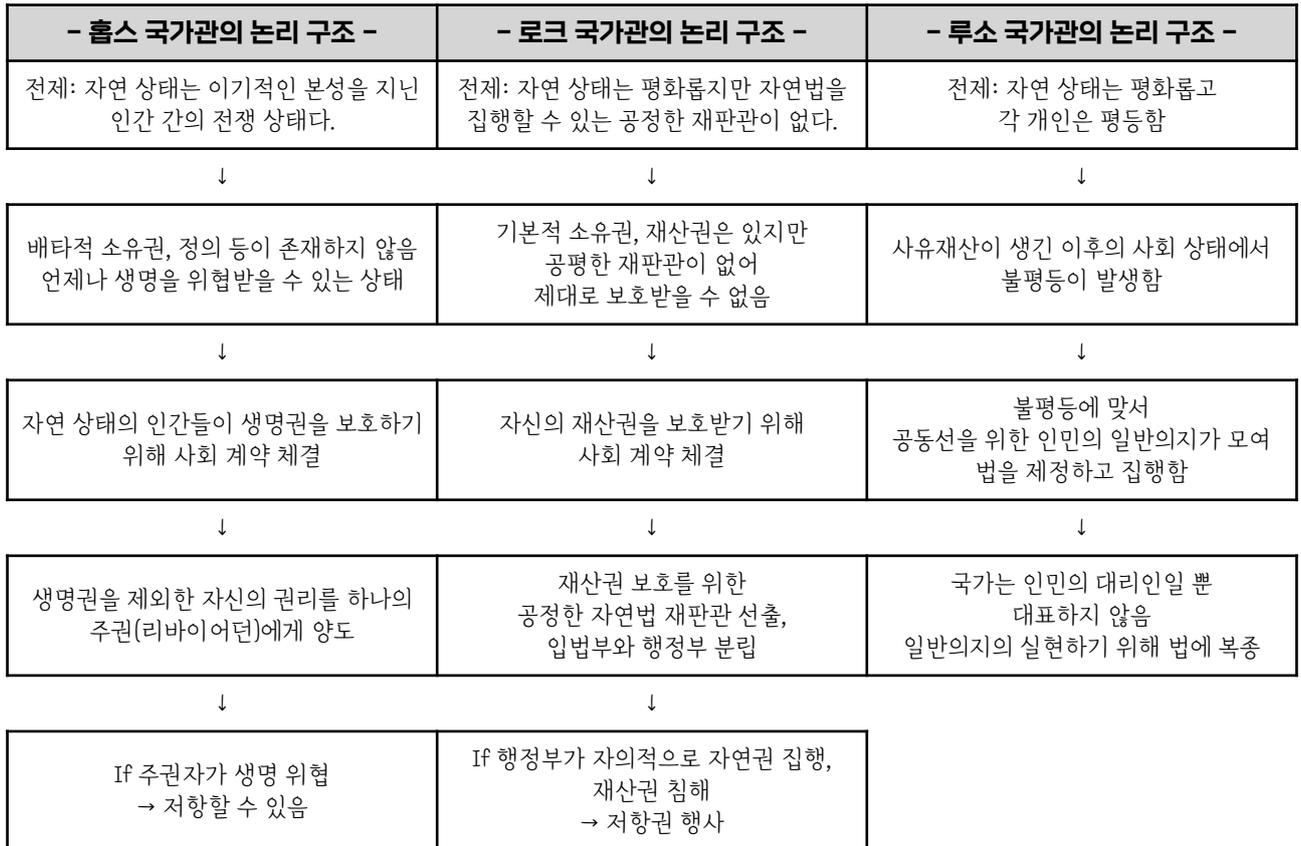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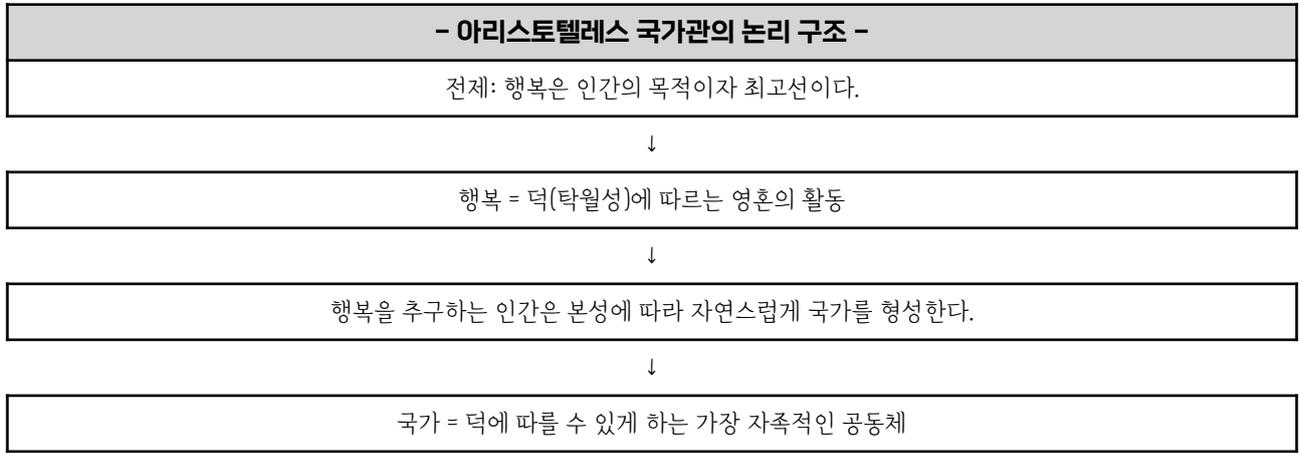
죽음에 대한 불안을 직시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함

[Review 2. E-Special]

플라톤	이성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 / X
	영혼은 죽음에 의해 소멸되지 않는다.	□ / X
	죽음은 감각의 손실이 아니라 참된 진리를 깨닫는 계기이다.	□ / X
	죽음은 영혼이 가장 잘 사유할 수 있는 사건이다.	□ / X
하이데거	이성의 유무와 상관 없이 죽음을 인식할 수 있다.	□ / X
	죽음은 현존재에게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한다.	□ / X
	현존재는 죽음을 회피할 수 없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	□ / X
	현존재는 죽음이 삶의 종착지임을 인식해야 한다.	□ / X
공자	죽음을 통해 내면의 도덕성을 실현해야 한다.	□ / X
장자	삶과 죽음의 관계는 선과 악의 관계이다.	□ / X

Day 3. 국가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Review 2. E-Special]

아리스토텔레스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를 형성한다.	□ / X
	시민의 좋음과 국가의 좋음은 서로 무관하다.	□ / X
	국가는 본성상 가정과 개인에 우선한다.	□ / X
	좋음과 나쁨의 인식에서 국가가 생성된다.	□ / X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 / X
홉스	자연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 X
	절대 권력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할 수 있다.	□ / X
	사회 계약은 각 개인의 이성을 기반으로 한다.	□ / X
	국가 구성원은 주권자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 / X
로크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처벌할 수 없다.	□ / X
	국가 속에서 인간은 정치 권력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있다.	□ / X
루소	국가는 구성원의 생명 보장에 필수적이다.	□ / X
	국가의 주권은 행정부에 의해 대표된다.	□ / X

Day 4. 정의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롤스 정의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이다.

공정한 절차(정의의 원칙)는 ()에서 도출된다.	정의의 원칙 01. 평등한 ()를 모두 최대한 누려야 한다. 단,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절충될 수 있다.
원초적 상황 (무지의 베일) = ()한 개인이 합리적으로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상황	정의의 원칙 02. 사회적 불평등의 계기가 되는 직위의 기회는 ()해야 한다.
	정의의 원칙 03. 사회적 불평등은 ()에게 최대의 이익이 될 때 정당화된다. (→ ()의 분포는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

국가는 시장 체제를 구비하면서 소수의 통제를 방지해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해야 한다.
(재산 소유 민주주의)

- 노직 정의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소유 권리의 정당함이다.

개인은 정당한 소유물에 대한 배타적, 절대적 권리를 가진다. (()적이고, ()된 정의)	정의의 원칙 01. 정당한 노동을 통해 ()한 재화는 그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정의의 원칙 02. 타인에게 자유롭게 ()받은 재화는 그 사람에게 소유 권리가 있다.
	정의의 원칙 03. 재화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절차를 ()해야 한다.

↓

국가는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호하는 ()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정책 등 반대)

[Review 2. E-Special]

롤스	원초적 상태의 개인은 일반적인 지식에 대해 무지하다.	<input type="checkbox"/> / X
	능력에 따른 분배는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최소 수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없으면 분배는 균등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X
	재능과 재산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을 인정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X
	정의의 원칙은 문화적 원시 상태에서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 X
	자연적 우연성을 활용하여 재화를 늘리는 것을 허용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노직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국가가 분배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국가 주도의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를 개선시킬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국가의 과세 정책은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 X
	정의로운 사회에서 개인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정의의 원칙은 비역사적 상황에서 합의되는 것이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X
	사회 복지 실현을 위한 국가의 과세 정책은 허용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아리스토텔레스	분배와 상호 교섭에서 정의로운 것은 동등한 것이다.	<input type="checkbox"/> / X
	부정의함을 바로잡을 때 당사자들을 동등한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X
	교정적 정의는 자발적, 비자발적 교섭에서 모두 성립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X

Day 5. 형법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칸트 형법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처벌 그 자체의 목적)

범죄 행위에 상응(비례)하는 ()이 필요함	법률은 하나의 (), 형벌은 범죄자의 ()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
-------------------------------------	--

살인을 저질렀다면 이와 동등하게 사형에 처해야 함	사형은 살인자의 ()적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 (살인자의 사회적 인격성은 이미 X ()으로부터 해방)
-----------------------------	---

- 루소 형법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수단으로서의 처벌)

자연 상태의 개인들은 자연권(생명권, 재산권 등)의 보호를 위해 사회 계약을 체결함, 자신의 모든 것을 양도

국가에 소속된 개인이 살인을 저지른다면, 이는 국가 안정에 대한 위협
(살인자 = ())

국가는 ()을 국가로부터 ()하거나 사형시킬 수 있음
(For 국민의 생명권)

- 베카리아 형법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처벌의 이유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이다.
(수단으로서의 처벌)

형벌의 강도보다는 ()이 더 범죄 예방 효과가 큼	개인은 사회 계약을 체결할 때 생명권을 양도하지 않음
---	----------------------------------

강도가 큰 사형보다 ()이 큰 ()이 더 효과적임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 없음,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의해 사형은 부당함
---	---

[Review 2. E-Special]

칸트	살인범의 생득적 인격성은 그가 범죄 예방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해준다.	□ / X
	사형은 공적 정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부합한다.	□ / X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 / X
	국가의 안전을 위해 형벌이 필요하다.	□ / X
루소	사형은 주권자가 위임할 수 없는 권리이다.	□ / X
	시민을 살해한 자는 더 이상 국가의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 X
	사형은 살인자가 시민의 자격을 잃었다는 공적 선포이다.	□ / X
베카리아	살인 금지를 규정한 법에 의해 국가에 의한 사형은 성립되지 않는다.	□ / X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형벌에 목적에서 우선한다.	□ / X
	사형을 규정한 법률은 사회 계약에 위반된다.	□ / X
벤담	형벌은 그 자체로 악이므로 형벌을 통해 예방되는 해악보다 항상 크다.	□ / X

Day 6. 시민 불복종

[Review 1. Beyond The Sense]

- 롤스 시민 불복종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의 공정함이다.



정의의 원칙에 의해 ()이 제정된 체제는 정의롭지만,
일부 법은 정의롭지 않을 수 있음



정의의 원칙, 공유된 정의관을 현저하게 위배되는 법은 ()의 대상
(체제 변혁, 정의의 원칙 자체, 차등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의 대상이 아님)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가 아닌
공유된 정의관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가능함

- 싱어 시민 불복종의 논리 구조 -

전제: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실현하여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적 접근)



합법적 절차를 따르더라도 심각한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법은 ()의 대상
(다수가 합의하거나 공유된 정의관에 따랐더라도)



시민 불복종으로 초래되는 손해와 이익을 계산
(중단되어야 하는 악의 크기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 감소 가능성을 고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을 표명하는 것

[Review 2. E-Special]

틀스	시민 불복종은 법에 대한 경고이자 위협이다.	□/X
	시민 불복종은 입헌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옳은 방식이다.	□/X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정의로운 체제가 침해되는 무질서를 고려해야 한다.	□/X
	정의로운 사회는 시민 불복종에 가담할 수 있는 범위에 한계를 두지 않는다.	□/X
	차등의 원칙을 위배한 법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다.	□/X
	부정의한 정도에 따라 시민 불복종의 여부가 결정된다.	□/X
심어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을 기반으로 처벌까지 저항해야 한다.	□/X
	불법적인 수단이 시민 불복종을 정당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X
	시민 불복종이 모든 국가에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X
	시민 불복종은 다수에게 부정의한 법을 알리려는 시도지만 강요될 수 없다.	□/X
소로	시민 불복종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시도된다.	□/X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개인적 정의관에 귀결된다.	□/X

[Week 1]

Day 7.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가독성을 위해 여백 처리합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 제 () 선택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인간의 올바른 삶을 위하여 모든 행위자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표준이나 규칙을 제시하고 정당화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윤리학이 사회의 도덕적 현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담론에서 논리적 추론의 타당성 검증을 강조한다
- ② 도덕적 진술을 구성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 분석을 강조한다
- ③ 올바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 규범적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 ④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강조한다
- ⑤ 도덕적 문제의 발생에 대한 인과적 설명의 중요성을 간과한다

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바깥에서부터 나에게 녹아들어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생각하지 않았을 뿐이다.
 을: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피와 욕심이 없게 해야 하고, 피가 있는 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감히 무언가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무위(無爲)하면 다스리지 못할 것이 없다.

- ① 갑: 서(惻)의 실천을 통해 진정한 인간다움(仁)을 이룰 수 있다.
- ② 갑: 군자는 항상(恒産)이 있어야만 항상(恒心)을 유지할 수 있다.
- ③ 을: 백성의 수를 늘리면 자연스럽게 무위의 다스림을 이룰 수 있다.
- ④ 을: 진정한 자유를 위해 만물의 근원인 도(道)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⑤ 갑과 을: 옳고 그름을 가릴 줄 아는 마음으로 사욕을 제거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덕은 인간이 습득한 성질로, 인간의 선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것은 개인이 삶의 서사적 통일성 속에서 좋은 삶의 목적을 이해하는 능력이며, 도덕적 전통의 보존과 관련된다.

<보 기>
 가. 공동체의 선보다 보편적인 도덕 원칙을 더 중시해야 한다.
 나. 개인은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
 다. 도덕 판단을 할 때 행위자보다 행위 자체를 중시해야 한다.
 라. 개인의 도덕적 정체성은 사회적·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다 ④ 나, 라 ⑤ 다, 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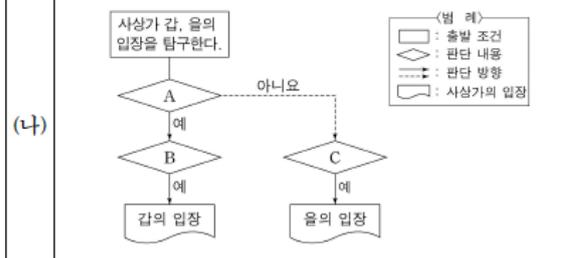
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오운(五蘊)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여 해탈하지 못하면, 태어남·늡음·병듡·죽임(生老病死)에 대한 두려움을 넘을 수 없다.
 을: 삶과 죽임은 명(命)이다. 대자연은 육체를 주어 나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며, 삶을 주어 나를 수고롭게 하며, 늡음으로 나를 편안하게 해주며, 죽임으로 나를 쉬게 한다.

- ① 갑: 죽임은 오운의 해체가기 때문에 괴로움[苦]이 아니다.
- ② 갑: 죽임은 원인과 조건에 의한 관계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이다.
- ③ 을: 죽임으로 인해 흠어진 기(氣)는 더 이상 순환하지 않는다.
- ④ 을: 죽임은 천명(天命)에 따른 결과이므로 태연해서는 안 된다.
- ⑤ 갑과 을: 죽임의 두려움은 참된 진리의 자각으로 극복될 수 있다.

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시민 불복종은 그 결과의 옳음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우리는 시민 불복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마저 고려해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은 시민들의 정의관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시민 불복종은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어야 한다.



<보 기>
 가. A: 시민 불복종은 법의 부당함을 다수에게 강요하는 행위인가?
 나. B: 시민 불복종은 민주주의적 결정을 복원하려는 시도인가?
 다. C: 시민 불복종은 정의로운 법을 제정할 절차가 불안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가?
 라. C: 이익 집단의 시민 불복종은 공공의 정의관에 근거해야 허용될 수 있는가?

- ① 가, 나 ② 가, 다 ③ 나, 라
- ④ 가, 다, 라 ⑤ 나, 다, 라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소유도 지배도 내 것과 네 것의 구별도 없다. 이러한 자연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죽음의 공포라는 정념과 평화 추구의 이성애 있다.

—<보 기>—

- ㄱ. 국민의 자유와 주권자의 절대 권력은 양립할 수 있다.
 ㄴ. 자연 상태에는 생명과 자유를 빼앗길 수 있는 불의가 존재한다.
 ㄷ. 주권자는 평화와 공동 방위를 위해 국민의 힘과 수단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강조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옳지 않은 것은?

- 사사로운 씀씀이를 절약하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나라 공간을 절약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공공의 것을 마치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겨야 어진 목민관이다.
- 목민관은 자신의 생일에 관청 사람들이 성찬을 바치더라도 받아서는 안 된다. 받지 않고 오히려 내어놓는 바가 있더라도, 공공연히 말하지 말고 자랑하는 기색을 나타내지도 말라.

- ① 근검절약하면서도 인색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절약의 대상을 사적인 영역으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
 ③ 절용(節用)을 통해 애민(愛民) 정신을 구현해야 한다.
 ④ 국민의 모범이 되기 위해 자신의 청렴을 과시해야 한다.
 ⑤ 작은 선물이라도 정당한 것이 아니면 받지 말아야 한다.

8. 현대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이 자의적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개인은 이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창출되는 결과물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을: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연적 자산은 자의적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신의 더 큰 천부적 능력을 사회에 있어서 더 유리한 출발점으로 이용할 자격은 없다.

—<보 기>—

- ㄱ. 갑: 지능 지수에 따른 분배 원리는 역사적이고 정형적이다.
 ㄴ. 을: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는 제1원칙에 의해 평등해야 한다.
 ㄷ. 을: 천부적 능력이 분배 몫의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경감시킬 필요는 없다.
 ㄹ. 갑과 을: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이용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p>갑: 자연 상태에서부터 법적 상태로의 이행은 형법을 요청한다. 살인과 달리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에 있는 인간성을 추악하게 만드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야 한다.</p> <p>을: 살인자는 사회의 법을 위반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조국에 대한 반역자가 되어 버린다. 그는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국가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p> <p>병: 인간은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으므로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형은 권리의 문제가 아니며, 한 사람의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p>
(나)	

- ① A: 범죄 사실 자체를 근거로 형벌을 부과해서는 안 됨을 간과한다.
 ② B: 살인자에 대한 사형은 그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임을 간과한다.
 ③ C와 E: 살인자에게 사형 이외의 형벌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D: 사회 전체를 대표하는 입법자에게만 형벌권이 있음을 간과한다.
 ⑤ F: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 산업에 의해 사전 기획된 것입니다. 문화 산업의 공식 목표는 허자 없는 완전한 규격품을 만들듯이 인간을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것에는 문화 산업의 인장이 찍힙니다. 문화 산업의 기획자들은 소비자들을 기만하며 그들을 소비를 위한 단순한 객체로 만듭니다. 문화 상품의 수송 과정에서도 예술 작품의 사용 가치는 교환 가치에 의해 대체됩니다. 하지만 정신은 예술의 잘못된 보편성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보편성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정신의 진정한 속성은 사물화에 대한 부정입니다. 정신이 문화 상품으로 고정되고 소비를 위한 목적으로 팔아 넘겨지면 정신은 소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 ① 문화 산업은 문화 상품의 표준화 가능성을 약화한다.
 ② 문화 산업은 사물화를 거부하는 정신의 속성을 강화한다.
 ③ 문화 산업은 대중문화에 대한 소비자의 주체성을 훼손한다.
 ④ 문화 산업의 대중적 확산은 예술의 고유한 보편성을 고양한다.
 ⑤ 문화 산업은 예술 작품이 지닌 경제적 효용 가치를 약화한다.

11.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문 ○○○○년 ○○월 ○○일

칼럼

정보 기술의 발달로 정보가 새로운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정보는 물질적 재산과 달리 소유할 수 없고 네트워크를 통해 접속된다. 그 결과 우리는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접속의 시대에는 정보가 곧 돈이 된다. 누구든지 정보를 창조적으로 생산할 자유를 지니지만 현실에서는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격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다. 물론 정보의 창조적 생산에는 지적 능력이 필요하고 또 이 능력의 평준화는 불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정보 활용 능력이다. 특히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려면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누구에게라도 똑같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정보 기술의 발달만으로는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정보 접속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 ① 정보 기술이 발달하면 개인 간 정보의 빈부 격차가 사라진다.
- ② 정보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정보 평등이 가능하다.
- ③ 네트워크 시대에는 물질적 재화가 더 이상 자산이 되지 못한다.
- ④ 정보를 창조하는 지적 능력이 정보 활용 능력보다 더 중요하다.
- ⑤ 정보를 생산하는 능력이 평등해야 정보의 불평등이 극복된다.

12.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좋은 음식은 탐을 내고, 맛있는 음식은 쟁그리고, 중얼 먹어도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덕 있는 선비는 배불리 먹을 타령을 금해야 한다.

(나) 음식에 들어간 공(功)을 생각하고 자기의 덕행이 공양을 받을 만한지 생각하라. 탐욕을 버리고 식사를 약으로 알아 몸의 여힘을 방지하라.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이 음식을 받는다.

- ① (가): 음식의 탐욕을 위해 음식이 생겨난 과정을 알아야 한다.
- ② (가): 몸의 건강과 마음의 다스림을 위해서는 금식이 필수적이다.
- ③ (나): 음식이 지닌 윤리적 가치보다 영양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④ (나): 음식을 먹는 태도가 아니라 음식에 들어간 노력이 중요하다.
- ⑤ (가)와 (나): 음식을 먹는 행위는 수양을 통해 조절되어야 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류의 존속은 부정적 방식으로 강력해진 기술 문명의 시대에 있어서 우리 모두의 일차적 책임이다. 현재 우리 손에 달려 있는 지구의 생명은 그 자체로 우리의 보호를 요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요청은 미래 세대에게도 해당된다.

<문제 상황>

A는 핵분열을 유도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권위자인데, 정부로부터 핵무기 개발을 요청받았다. A는 핵무기를 개발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인류의 존속을 위해 과학 기술의 힘을 억제해야 함을 생각하라.
- ② 과학 기술의 장기적 결과의 위험성보다 단기적 효과를 생각하라.
- ③ 객관적 사실을 다루는 과학 기술이 윤리의 나침반임을 생각하라.
- ④ 환경 파괴는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한 불가피한 대가임을 생각하라.
- ⑤ 도구적 이성이 과학 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주도해야 함을 생각하라.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가 필요하다. 원조의 목표는 고통 받는 사회들이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나 차단점을 넘어서면 원조는 필요 없다.

을: 절대 빈곤은 매우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 절대 빈곤을 감소시킬 힘이 있다면, 인류 복지의 최대화를 위해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

<보 기>

ㄱ. 갑: 공격적인 사회는 자원이 매우 부족해도 원조 대상이 아니다.
 ㄴ. 을: 절대 빈곤의 감소를 위한 원조는 예외 없는 도덕적 의무이다.
 ㄷ. 을: 원조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른 전 지구적 의무이다.
 ㄹ. 갑과 을: 원조 대상의 경제력은 원조 결정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유기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

을: 비록 무생물이라 할지라도 자연 안에 있는 아름다운 대상을 파괴해 버리는 인간의 성향, 즉 파괴적 정신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대립한다.

병: 어떤 것이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인간은 생명 공동체의 한 구성원일 뿐이다.

(나)

<법 레>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병만의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동 입장

<보 기>

ㄱ. A: 인간이 아닌 생명체에 대한 해악 금지 의무는 그 생명체의 내재적 선에 근거한다.
 ㄴ. B: 이성적 삶의 주체만이 생명체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ㄷ. C: 생명체들의 가치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ㄹ. D: 어떤 생명체의 존속은 그 생명체의 본래적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16.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동물 실험은 인간을 위한 신약 개발이나 제품의 안전성 검증 등을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 실험 과정에서 수많은 동물이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모든 동물 실험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동물이 겪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큰 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갑: 동물 실험이 인간에게 큰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인간의 이익이 동물 실험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도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모든 동물 실험은 동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합니다.

을: 아닙니다. 동물의 권리와 이익보다 인간의 권리와 이익을 중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간에게 큰 이익을 주지 못하면서 동물에게 큰 고통을 줄 경우에는 동물 실험이 금지되어야 합니다.

- ① 동물 실험이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가?
- ② 인간은 동물 실험을 통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가?
- ③ 동물은 동물 실험 과정에서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 ④ 동물 실험에서 인간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를 중시해야 하는가?
- ⑤ 인간의 이익은 동물 실험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17.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비주류 문화를 주류 사회의 문화에 편입시키고 융합하여 국가 구성원 전체가 공유하는 통일된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

(나) 이민자의 고유한 문화와 자율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 통합의 방법이다. 문화적 다양성을 대등하게 수용하고 다양한 문화의 평화적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

- ① (가): 문화의 통합성과 집단 간 결속력의 관계는 상호 배타적이다.
- ② (가): 사회 제도와 질서의 유지는 문화들의 평화적 공존으로부터 온다.
- ③ (나): 저문화 중심주의를 고집하는 태도는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된다.
- ④ (나): 주류 문화로 통일된 문화 정체성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 ⑤ (가)와 (나): 사회 통합을 위해 문화 간 차별 없는 정책과 관용이 필요하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의사소통적 실천은 생활 세계에서 합의를 이루고 유지하며 또한 새롭게 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의사소통적 실천의 합리성은 달성된 합의가 최종적으로 근거에 의지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참여자의 합리성 역시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적절한 상황에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

- ① 토론 참여자는 토론에서 근거 없는 주장을 지양해야 한다.
- ② 토론 참여자는 타인의 의견을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③ 토론 참여자는 주관적 견해를 극복한 후에 대화에 참여해야 한다.
- ④ 토론 참여자의 심의를 통해 합의된 주장은 절대적으로 참이다.
- ⑤ 토론에서 발언 기회는 합리적 근거 제시 능력에 따라 주어져야 한다.

1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이기적 본성을 지닌 인간처럼 국가도 권력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국제 정치에서 세력 균형은 주권 국가로 구성된 국제 사회의 중요한 안정 요소이다.

을: 국제 정치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고, 무력과 기만을 근절해 평화를 예비해야 한다. 세계 시민법은 영원한 평화의 실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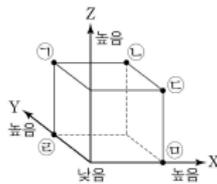
ㄱ. 갑: 파괴된 세력 균형을 복원하는 방법은 전쟁뿐이다.
 ㄴ. 갑: 국내 정치와 같이 국제 정치도 그 본질은 권력 투쟁이다.
 ㄷ. 을: 국가들의 자유 보장이라는 연맹의 이념이 확산되어야 한다.
 ㄹ. 갑과 을: 평화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 간 협력이 유일한 방법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성적 관계에 관한 결정은 해약 금지의 원칙과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 성적 쾌락의 추구를 혼인과 출산 및 사랑으로 제약하는 것은 성적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이다.

(나) 성적 관계는 출산과 양육의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녀의 결혼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은 성의 사회적 책임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 X: 성적 관계에서 쾌락적 가치보다 생식적 가치를 강조하는 정도
- Y: 사랑과 무관한 성적 관계가 정당함을 강조하는 정도
- Z: 혼전(婚前) 성적 관계의 도덕적 허용을 강조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Day 1. 예술관

[Review. E-Special]

플라톤	예술가는 선악의 개념에 초연한 존재이다.	□ / X
	예술가는 철학자의 도덕적 이상향을 모방해야 한다.	□ / X
	국가는 예술 작품을 도덕적인 방향으로 선도해야 한다.	□ / X
스핑크	예술은 미적 행위이지만 선의 구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 / X
	예술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통념과 연관 지으면 안 된다.	□ / X
	예술가는 사회를 변화시키는 지성인의 한 부류이다.	□ / X
와일드	예술의 가치는 예술 그 자체에 있다.	□ / X
	예술은 지성이나 감성이 아닌 인간의 예술적 기질에 호소하는 것이다.	□ / X
칸트	미적인 것과 선한 것은 서로 독립적인 영역이 없다.	□ / X
	미적 체험과 도덕적 체험은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 / X
	예술에서 비롯된 즐거움은 인간을 감정에 구속시키지 않는다.	□ / X
아리스토텔레스	예술은 자연을 통해 모방될 수 있다.	□ / X
	예술은 자연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목표로 한다.	□ / X

Day 2. 기술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야스퍼스 기술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은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다.



기술 자체는 선, 악이 없는 ()적 개념
(기술의 가치 중립성 인정)



기술의 활용을 통해 인간의 주체적 능력을 실현해야 함
(기술의 활용 측면의 가치 개입 인정)

- 하이데거 기술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은 인간이 세계와 존재를 이해하는 방식이다.
(()의 과정)



기술을 가치 중립적으로 볼 때 인류는 ()상태에 놓여짐 (기술에 종속)
(기술의 가치 중립성 부정)



기술의 활용에 있어 '도구적 이성'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
(기술의 활용 측면의 가치 개입 인정)

- 요나스 책임 윤리의 논리 구조 -

전제: 기술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한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상태)



현 세대 인간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유일한 존재



현 세대의 행위로 미래 세대가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를 기반으로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함
()



인간의 행위가 미래 세대의 존재와 삶의 질에 끼치는 영향까지 고려

[Review 2. E-Special]

야스퍼스	기술의 활용에 대한 반성적 검토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하이데거	기술의 본질을 인간을 위한 도구 역할에 한정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과학 기술은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요나스	과학 기술은 그 영향력에 비례하여 책임에 대한 요구도 커진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과학 기술에 대한 긍정적 검토로써 인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과학 기술은 인간이 예측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면서 그 문제점이 드러난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와 책임의 대상은 항상 같다.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Day 3. 기술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맹자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분에 충실하며 덕을 실천해야 한다.

↓

덕에 따라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을 구분
(상호 보완적 관계)

↓

고정적 생업을 통한 생계 유지는 궁극적으로 도덕적 마음의 기반 (()의 보장)
*()는 향산 없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음

- 순자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분에 충실하며 덕을 실천해야 한다.

↓

()에 따라 사회적 역할 분배
(각자의 적성/능력 고려)

↓

예에 따라 서로의 역할 교환 가능
(사대부라도 서인이 될 수 있고, 서인이라도 사대부가 될 수 있음)

- 플라톤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업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타고난 소질에 따라 나뉜 계급에 맞는 덕을 실현해야 함
(통치자 - 지혜, 용기, () / 방위자 - 용기, () / 생산자 - ())



각 계급은 서로 반목하거나 직업을 교환하지 않음
(직업 선택의 자유 X)

- 칼뱅 직업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직업을 통해 신의 ()을 실현해야 한다.



직업은 신의 ()
우열이나 귀천이 없음 (직업 선택의 자유 X)



근면한 생활을 통한 직업적 성공 긍정

[Review 2. E-Special]

맹자	백성들이 떳떳한 직업을 가져야 도덕적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	□ / X
	선비는 일반 백성들과 달리 향산이 없어도 향심을 유지할 수 있다.	□ / X
순자	군자와 달리 소인은 어떤 경우에도 옳지 않은 결과를 낳는다.	□ / X
	덕에 따라 사회적 지위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	□ / X
	예는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하게 해줄 수 있다.	□ / X
플라톤	직업을 통해 자신의 고유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 / X
	구성원 간 역할 교환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 / X
칼뱅	직업적 성공은 신의 은총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 / X
	부의 축적과 신의 소명 실현은 양립 가능하다.	□ / X
퍼트넘	사회적 자본이 축적된 사회에서 청렴성이 제고된다.	□ / X
	사회적 자본은 사회 갈등이 해소된 이후에 축적된다.	□ / X

Day 4. 평화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칸트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국제 정치에서는 무정부 상태 속 ()적이고 ()적인 개별 국가가 존재한다.

↓

상대 국가에 대한 무지나 오해로 인해 분쟁이 발생

↓

각 주체(개인, 국가 등)의 노력으로 국가 간 신뢰를 정착해 ()를 이루어야 함	
<p style="text-align: center;">[확정 조항]</p> 01. 각 국가의 정치 체제는 () 02.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 간의 ()에 기초 03. 세계 시민법은 () (환대권)에 한정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 조항]</p> 평화 조약, 독립 국가, 내정 간섭 등에 대한 규약 제정

- 모건소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국제 정치에서는 무정부 상태 속 ()적인 개별 국가들이 존재한다.

↓

힘의 충돌, 국익을 우선시하는 욕구로 분쟁이 발생

↓

() (조정, 타협 등)을 통해 전쟁을 예방
But 언젠가 깨질 수 있음

- 갈통 평화관의 논리 구조 -

전제: 평화는 ()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

() 폭력 (신체적, 물리적 폭력 ex. 전쟁)	() 폭력 (구조적, 문화적 폭력 ex. 억압, 착취)
--------------------------------	------------------------------------

↓

↓

() 폭력 제거 → () 평화 달성	() 폭력 제거 (ex. 정치 문화 개선) → () (궁극적) 평화 달성
--------------------------	---

[Review 2. E-Special]

칸트	영구 평화를 추구하고 실천하는 것은 인간의 무조건적 의무이다.	□ / X
	보편적 우호 조건은 이방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지킬 때 실현된다.	□ / X
	영구 평화를 위해 모든 국가에게 국제법 승인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	□ / X
모건소	평화적 외교 정책을 통해 국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 / X
	국가적 본성과 인간적 본성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 X
	성공적인 세력 균형은 타 국가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방지해준다.	□ / X
갈통	모든 폭력은 직접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으로 확장된다.	□ / X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는 폭력의 합법화를 평화의 합법화로 전환할 수 있다.	□ / X

Day 5. 자연관

[Review 1. Beyond The Sense]

- 칸트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모든 이성적 존재자는 경향성과 함께 선의지와 이성을 지닌다.

↓

동물 ≠ 이성적 존재
∴ 동물 ≠ ()적 의무의 대상

↓

인간의 동물에 대한 잔혹한 행위는 인간성에 악영향
∴ 동물에 대한 ()적 의무 존재

- 싱어 자연관의 논리 구조 -	- 레건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 (= 감정)을 지닌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제: () (+@)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

동일한 쾌락/고통에 대한 동등한 대우
(≠ 동일한 대우)

↓

삶의 주체를 단지 수단으로만 취급 X

↓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

(싱어보다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위가 작음)

- 테일러 자연관의 논리 구조 -	- 레오폴드 자연관의 논리 구조 -
전제: ()적 삶의 목표를 지닌 존재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전제: () 구성원의 도덕적 권리를 고려해야 한다.

↓

모든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함

↓

생태계 전체(=대지)의 아름다움 보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생명체에 대한 존중이 의무로 부과됨

↓

생태계와의 조화를 추구해야 함

[Review 2. E-Special]

칸트	동물의 고통에 대한 반응은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이 있다.	□ / X
	인간 이외의 자연물을 단지 인간의 도덕성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길 수 없다.	□ / X
싱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없는 존재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유는 없다.	□ / X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의 희생이 정당화되는 경우가 있다.	□ / X
레건	내재적 가치를 지닌 존재는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 X
	쾌고 감수 능력이 있는 존재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 / X
테일러	내재적 가치를 지닌 모든 유기체 간 도덕적 책임이 존재한다.	□ / X
	무정적 존재도 내재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	□ / X
레오폴드	생명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고려와 구성원에 대한 도덕적 고려가 양립할 수 있다.	□ / X
칸트∩레건	인간은 동물 종(種)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직접적인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 / X
칸트∩테일러	인간에 대한 의무의 근거는 생명체에 대한 의무를 정당화한다.	□ / X

Day 6. 해외 원조

[Review 1. Beyond The Sense]

- 룰스 해외 원조의 논리 구조 -

전제: 정의는 절차의 공정함이다.

↓

정의로운 절차가 미비한 () 사회가 () 사회가 되도록
해외 원조 이행

↓

But 공격적인 () 사회는 원조에 대상에서 제외되며
원조 대상이 정의로운 사회가 되었다면 원조는 종료됨

- 싱어 해외 원조의 논리 구조 -

전제: 타인의 고통을 개선시키는 능력이 있다면 도덕적 의무가 발생한다.

↓

전 인류의 복지 향상, 절대 빈곤의 종식을 위해 해외 원조 이행
() 고려의 원칙: 모든 인간의 이익 고려

↓

But 원조 주체의 경제력에 심각한 손해가 난다면
원조를 중단해야 함

[Review 2. E-Special]

룰스	국제 사회의 정의를 위해 국가 간 자원을 재분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 / X
	원조의 의무는 대상의 경제 상황을 개선시키기 위한 분배적 정의에서 비롯된다.	□ / X
	정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다.	□ / X
싱어	원조 대상은 반드시 빈곤 국가의 국민으로 국한되어야 한다.	□ / X
	해외 원조는 인류의 공리 증진을 위해 요청되는 의무이다.	□ / X
	해외 원조를 통해 세계 시민 의식을 실현시킬 수 있다.	□ / X

[Week 2]

Day 7.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독성을 위해 여백 처리합니다.)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 제()선택

1. (가), (나)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윤리학은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 판단이 정당화될 수 있는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나) 윤리학은 인공 임신 중절,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등과 같은 우리 삶의 다양한 문제에 윤리 이론을 적용하여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 ① (가): 도덕 현상을 가치 평가 없이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 ② (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를 정립하는 것이다.
- ③ (나):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탐구하는 것이다.
- ④ (나): 구체적인 윤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 ⑤ (가)와 (나): 보편타당한 도덕규범의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성은 행위가 의지의 자율과 맺는 관계이다. 의지의 준칙이 자율성의 법칙과 필연적으로 조화를 이룰 때, 그 의지는 단적으로 선한 의지가 된다.
 <문제 상황>
 평소 함께 식사하던 친구가 급식실에 늦게 도착한 A에게 자신의 앞에 서라고 권했다. A는 새치기를 할지 질서를 지켜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친구들 사이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②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중용에 따른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③ 친구와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끄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④ 가능한 행위 중에서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를 선택하세요.
- ⑤ 더 많은 쾌락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를 선택하세요.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때[時]를 만났기 때문이고 어쩌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은 순리[順]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편안한 마음으로 때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리를 따른다면 슬픔이나 기쁨이 들어올 틈이 없다.
 을: 삶은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원하는 것[義]이 있기에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다. 또한 죽음은 내가 싫어하는 바이지만 이보다 더 싫은 것[不義]이 있기에 환란으로 죽더라도 피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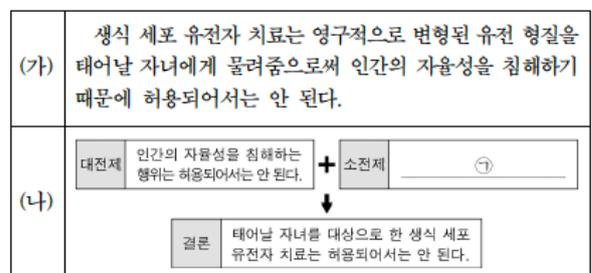
- ① 갑: 죽음을 거부하면서 도덕을 실천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낮과 밤처럼 순환하므로 초연하게 대해야 한다.
- ③ 을: 죽음 이후의 새로운 삶을 받지 않도록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 ④ 을: 삶과 죽음을 서로 차별하지 말고 동등하게 수용해야 한다.
- ⑤ 갑과 을: 삶과 죽음은 슬퍼하거나 기뻐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얼굴을 식별하여 본인임을 인증하는 안면 인식 기술은 비밀번호나 디지털 인증서보다 본인 확인 절차가 간단하고 편리하기에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을: 동의합니다. 하지만 안면 인식 기술에 고도화된 인공 지능을 결합한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의 개발에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은 안면 데이터를 대량으로 학습하고 식별하여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갑: 아닙니다.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을 테러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이 기술의 개발을 허용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테러 예방에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불특정 다수의 얼굴을 판독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 기술을 개발해서는 안 됩니다.

- ① 안면 인식 기술을 전면적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 ②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은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가?
- ③ 안면 인식 기술의 활용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 ④ 안면 인식 인공 지능 기술은 테러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⑤ 안면 인식 기술과 고도화된 인공 지능의 결합을 허용해야 하는가?

5.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치료 목적으로 유전자에 개입하는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 ②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를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것이다.
- ③ 고가의 치료비로 유전자 치료 기회의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 ④ 태어날 자녀는 자신의 유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 동의할 것이다.
- ⑤ 부모가 결정한 유전자 치료는 태어날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술은 행복과 불행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는 중립적입니다. 기술은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닙니다.

기술을 긍정하건 부정하건 우리는 기술에 분둘려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집니다.



- ① 갑: 기술은 인간이 설정한 목적의 실현을 위한 공허한 힘이다.
- ② 갑: 기술의 활용 방안은 인간의 결정으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다.
- ③ 을: 기술은 가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통제되어야 한다.
- ④ 을: 기술은 인간이 자연과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킬 수 없다.
- ⑤ 갑과 을: 기술은 인간의 개입이 없을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다.

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에 의해서만 행해진다. 이때, 시민 불복종 행위가 항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바로 그 법을 위반하라는 요구를 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시민 불복종이라 부르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때로는 부정의하다고 간주되는 법이나 정책도 어기지 말아야 할 강력한 이유가 있다.

- ① 시민 불복종은 정치 체제의 효율성을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
- ② 시민 불복종이 성립되지 않는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일 수는 없다.
- ③ 안정적인 체제에서는 시민 불복종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는다.
- ④ 공격 심의를 거친 정책이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 ⑤ 시민 불복종은 다수결의 원칙에 대한 반대를 표하는 정치 행위이다.

8.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인위적인 것[人]으로 자연적인 것[天]을 없애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소, 양, 돼지 등의 고기를 먹지만 사슴은 풀을 먹고 지네는 뱀을 먹고 올빼미는 쥐를 좋다고 먹는다. 이 넷 중 어느 쪽도 음식 맛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 없다.

(나)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도 보지도 듣지도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 군자는 음식 빛깔이 나쁜 것, 제대로 요리되지 않은 것, 재철 음식이 아닌 것은 먹지 않는다. 또한 음식을 지른 모양이 반듯하지 않거나 간이 맞지 않아도 먹지 않는다.

- ① (가): 음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여 자연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② (가): 적절한 음식을 섭취하여 인간다운과 의로움을 실현해야 한다.
- ③ (나): 음식의 상태를 고려하여 먹는 것은 인격 수양의 일환이다.
- ④ (나): 음식을 섭취하는 목적은 육체적 생명의 보존에 국한된다.
- ⑤ (가)와 (나): 사회적 규범에 따라 음식을 올바르게 먹어야 한다.

9.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법은 개인의 특수 의사의 총체인 일반 의사를 대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능을 타인에게 기꺼이 양도하는 자는 없다. 그러므로 사형은 사회 계약에 포함될 수 없다.

을: 사회 계약에 사형이 포함될 수 없다는 이유로 모든 사형의 부적법성을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고 법의 왜곡이다. 형벌은 오직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행해지는 것이며, 형벌의 법칙은 하나의 정언 명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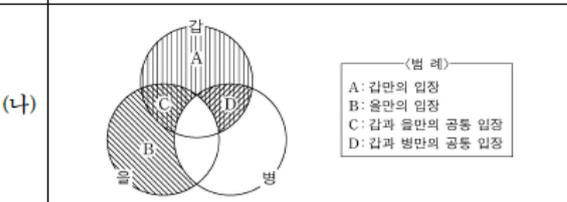
<보 기>

- ㄱ. 갑: 범죄 억제력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도에서 나온다.
- ㄴ. 갑: 중신 노역형은 범죄자보다 시민들에게 더 큰 공포를 준다.
- ㄷ. 을: 형벌 자체는 범죄자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악이다.
- ㄹ. 갑과 을: 사형을 오직 본보기로 집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살아 있는 동물이나 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인간이 고유한 선을 지닌 것과 동일한 의미로 각자의 고유한 선을 지니고 있다.
 을: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으로 변화시키며,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병: 동물 학대가 인간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우리가 동물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중 차별주의적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법 레>
 A: 갑만의 입장
 B: 을만의 입장
 C: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D: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보 기>

- ㄱ. A: 생명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면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없다.
- ㄴ. B: 개체에게 생명 공동체와 동등한 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
- ㄷ. C: 인간은 본질적으로 식물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할 수 없다.
- ㄹ. D: 자연 자체의 선은 개체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아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1.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물은 도(道)에 가깝고 무엇과도 다투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을: 두 단의 갈대 중 하나를 치우면 다른 하나도 넘어지듯,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도 일어난다. 이 법(法)은 내가 만든 것도 다른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다.

<보 기>
 ㄱ. 갑: 인의(仁義)의 강조는 사회 혼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ㄴ. 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에서 영원한 실체를 찾아야 한다.
 ㄷ. 을: 집착과 번뇌의 제거를 위한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ㄹ. 갑과 을: 차별하는 마음을 버려야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지난 편지에서 자네는 요즘 만나는 이성 친구를 진정한 사람의 대상으로 여겨도 되는지 물었지. 내 생각은 이러하네. 자네는 사람이 영혼의 힘이자 활동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더군. 사람은 상대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갈망이고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한다네. 사람은 능동적인 활동으로 인간의 고됨을 극복하게 하면서도 각자의 특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네. 단지 적절한 사람의 대상을 찾지만 한다고 해서 사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네. 그것은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배우지 않은 채 좋은 대상을 고르는 것만으로 아름다운 그림이 저절로 그려지지 않는 것과 같네. 세상에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는 법이네. 사랑도 그렇다네. 우선 제대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야 한다네. ... (후략).

- ① 참된 사랑은 사랑의 대상과 하나가 될 때 느끼는 영속적 감정이다.
 ② 참된 사랑의 궁극적 목적은 자신이 사랑할 대상을 찾아내는 일이다.
 ③ 참된 사랑은 자신의 관점에서 이해한 상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다.
 ④ 참된 사랑은 수동적 감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다가온다.
 ⑤ 참된 사랑은 삶의 기술처럼 학습과 노력으로 계발되는 기술이다.

1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사람들은 자연법 집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그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졌던 평등, 자유 및 집행권을 입법부가 처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수중에 양도한다. 이에 대한 명시적 동의는 그들을 공동된 법률의 지배하에 둬으로써 사회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만든다.

<보 기>
 ㄱ.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시민의 권리는 보장될 수 없다.
 ㄴ. 입법부를 폐지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
 ㄷ. 자연 상태에서 분쟁은 공동된 자연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14.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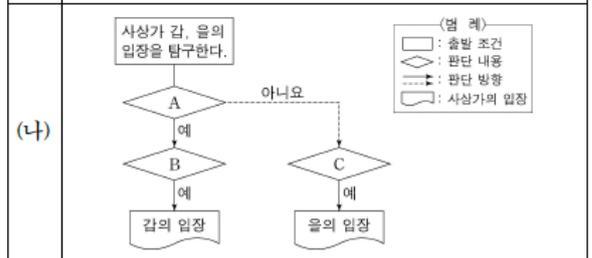
갑: 천하를 두루 이롭게 함은 직분(分)과 예의(義)로부터 나온다. 사람이 무리를 이루어 살되 역할에 따른 구분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나라가 혼란해져 편히 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사람은 잠시도 예의를 버릴 수 없다.
 을: 사회를 이루는 세 계층은 각자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일에서 탁월함을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서로의 일에 간섭한다면 사회에 해악을 끼치게 된다.

<보 기>
 ㄱ. 갑: 군주가 나라를 다스리려면 모든 직분에 통달해야 한다.
 ㄴ. 갑: 사회 구성원의 직분을 나누는 도덕적 기준이 존재한다.
 ㄷ. 을: 세 계층이 각자의 직분에 충실해야 정치가 실현될 수 있다.
 ㄹ. 갑과 을: 직분의 구분은 공동체 이익 증진에 도움이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5. (가)의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차등의 원칙은 사회적 협동을 위한 기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천부적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 한에서 각자의 자질을 사용하게 한다.
 을: 차등의 원칙은 정의를 위한 공정한 기반을 제시하지 못한다. 개인의 천부적 재능과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는 그 개인에게 있다.



<보 기>
 ㄱ. A: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과세 정책이 가능한가?
 ㄴ. B: 차등의 원칙은 더 큰 재능의 소유자에게 유익할 수 있는가?
 ㄷ. B: 재산의 평등한 분배가 정의의 원칙에 의해 허용될 수 있는가?
 ㄹ. C: 국가는 자유롭게 체결된 계약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성스러움이 세속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어 보여 주기 때문에, 인간은 성스러움을 알 수 있습니다.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성현(聖顯)입니다. 성스러운 나무, 성스러운 돌은 정확히 그것이 성현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돌이나 나무가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보여 주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숭배를 받는 것입니다. 종교의 역사란 가장 원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장 고도로 발달된 것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성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성스러운 존재들에 의지하여 안정과 평화를 추구해 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심지어 비종교적 인간도 종교적 의례나 신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으로 행동합니다.



- ① 성스러움과 속됨은 서로 양립할 수 있지만 조화될 수는 없다.
- ②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움을 만들어 내어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
- ③ 종교의 역사는 성스러운 실재의 단 한번 드러남으로 이루어진다.
- ④ 돌이나 나무는 그 자체로 성스럽기 때문에 숭배의 대상이 된다.
- ⑤ 성스러움을 믿지 않는 인간이라도 은연중에 종교적으로 행동한다.

1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어진 사람은 천하의 이익[利]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害]를 없앴을 법도다. 그는 자기 눈에 아름답고 귀에 즐겁고 몸에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옛 성왕(聖王)은 귀에 즐거워도 백성의 이익에 맞지 않아 음악을 즐기지 않았다. 을: 군자는 도(道)를 터득함을 즐기지만 소인은 욕망[欲]의 채움을 즐긴다. 도로 욕망을 통제하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된다. 옛 성왕은 우아한 음악[雅樂]을 제정하고 이끌어 사람들이 즐거우면서도 어지럽지 않게 하였다.

<보 기>

ㄱ. 갑: 분별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음악을 활용해야 한다.
 ㄴ. 을: 예법에 맞게 음악을 만들어 백성의 화합을 도모해야 한다.
 ㄷ. 을: 군자와 소인은 신분이 달라도 음악을 더불어 향유해야 한다.
 ㄹ. 갑과 을: 어진 사람은 인격 도야를 위해서만 음악을 즐겨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원조 대상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데 인종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중요한 것은 이익 자체이다.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원조를 해야 한다. 을: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 결과적으로 그 사회가 질서 정연한 만민의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 ① 갑: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이지만 조건부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 ② 갑: 원조 결정 시 원조 주체의 이익을 고려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 ③ 을: 원조의 차관점 설정은 원조 대상의 정치적 자율성을 침해한다.
- ④ 을: 고통받는 사회의 기본 제도 개선을 위한 원조는 허용될 수 없다.
- ⑤ 갑과 을: 고통받는 빈곤국의 복지 향상이 원조의 최종 목적이다.

19.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모든 경계가 무한하지만 모두 일심(一心) 안에 들어간다. 부처의 지혜는 모습을 떠나 마음의 원천으로 돌아가고, 지혜와 일심이 온전히 같아져 둘이 없다. 따라서 지극히 공정한 부처의 뜻을 토대로 여러 주장을 조화롭게 융합(和諍)해야 한다.

<문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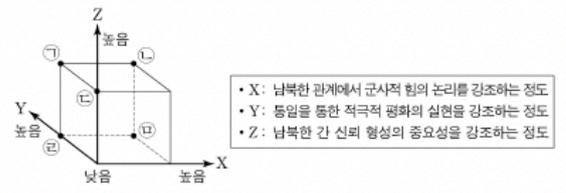
학급 회장인 A는 축제에서 학급 부스 운영 방안을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학급 친구들이 사진관, 오락실, 분식집 등 서로 다른 방안을 내세워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① 옳고 그름을 가려 자신만의 입장을 정당화하도록 토론하세요.
- ② 각 주장이 타당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친구들과 의견을 조율하세요.
- ③ 모든 의견을 통합할 수 없으므로 회장의 직권으로 결정하세요.
- ④ 다른 학급의 사례에 따라 운영 방안을 결정하도록 유도하세요.
- ⑤ 모두 편협한 주장이므로 친구들 다수의 동의를 기초로 판단하세요.

20.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북한은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의 대상이다. 따라서 북한보다 우월한 군사력과 강력한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전쟁을 억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나아가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나) 북한은 우리와 함께 평화 통일을 실현해야 할 협력의 상대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경쟁보다는 활발한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불신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통일을 이룸으로써 분단으로 인한 구조적·문화적 폭력까지 제거해야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다, 잘될 겁니다.